

## 지리산에 새끼 반달곰이 태어났어요

**지난** 달 26일 지리산 중턱(해발 1100m)에 있는 한 바위굴. 암컷 반달곰이 겨울잠을 자던 굴에서 20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고감도 마이크를 통해 기묘한 소리가 전해져 왔다. 굴 속을 들여다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더군요. (새끼 곰이) 젖을 달라고 보냈던 겁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8일 “2005년 북한에서 들여온 암컷 반달곰 두 마리가 각각 한 마리씩 새끼를 낳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크기로 봐서 올 1월쯤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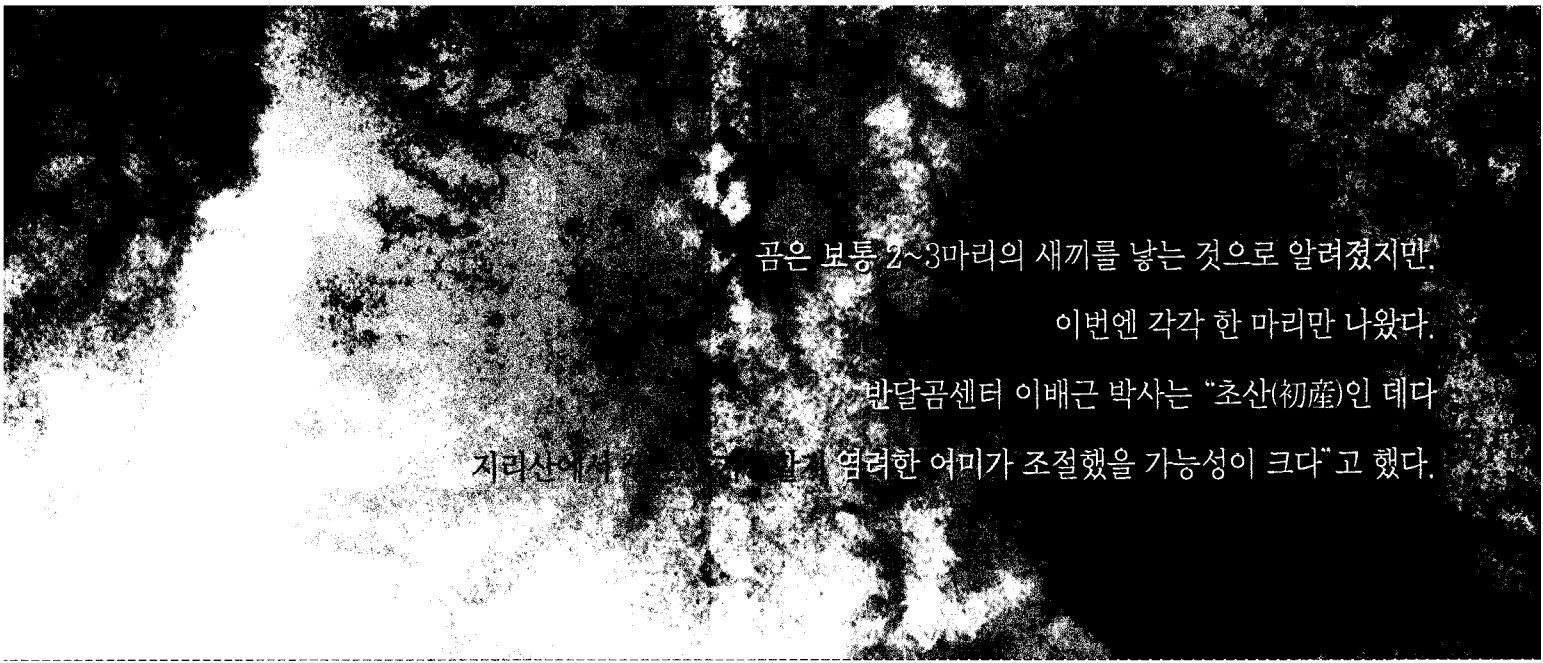
지리산에 반달곰(환경부지정 1급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제329호)을 품 지 5년 만에 첫 야생(野生) 번식이 이뤄진 것이다.

▲ (NF-10) 2005년 북한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이 낳은 새끼 곰이 어미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제공] 이들 새끼 곰은 현재 어른 팔뚝만한 크기에, 몸무게는 1~1.5kg가량 자란 상태다. 지리산 반달곰복원센터 송동주 센터장은 “갓 태어난 곰은 300~500g으로 어른 주먹만하지만 곰은 발육이 워낙 빨라 한두달 만에 이만큼 큰 것”이라고 했다. 어미가 겨울잠을 끝내고 나오는 4~5월쯤엔 이 새끼 곰들은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니게 된다.

곰은 보통 2~3마리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엔 각각 한 마리만 나왔다. 반달곰센터 이배근 박사는 “초산(初産)인 데다 지리산에서 생존이 가능할지 염려한 어미가 조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먹이가 주는 등 생존 환경이 우려되면 새끼를 덜 낳는 북극곰처럼 자연 조절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어미 곰은 새끼를 낳기 전 큰 고난을 치렀다. 한 마리는 2007년과 2008년 목에 올무가 걸린 채 발견돼 간신히 살아났고, 다른 한 마리 역시 2006년 올무에 걸렸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후 발정(發情)기인 작년 5~9월 여러 수컷 곰과 교미(交尾)한 것으로 파악돼 “역경을 이기고 올봄엔 새끼를 낳을 것”이란 기대를 모아왔다.





곰은 보통 2~3마리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엔 각각 한 마리만 나왔다.

반달곰센터 이배근 박사는 “초산(初産)인 데다 지리산에서 산란한 개체와 밀접한 여미가 조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번 야생번식 성공으로 반달곰 복원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은 2000년과 2003년 토종(土種) 반달곰 5~6마리가 지리산에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자,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에서 토종 곰과 같은 유전 군(群)자에 속하는 27마리의 새끼 곰을 들여와 지리산에 풀었다. 토종 수컷 곰과 교미를 유도해 토종 곰들이 멸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송동주 센터장은 “토종 곰의 후손인지 여부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 향후 새끼 곰들을 상대로 유전자 분석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지리산엔 수입 곰 27마리 중 12마리가 울무에 걸려 숨지거나, 야생적응 실패로 곰 사육장에 다시 갇히면서 지금은 15마리(수컷 6마리, 암컷 9마리)만 생존해 있다. ▲



◀ NF-10번 개체 새끼  
▼ NF-08번 개체 새끼



# 지리산 반달가슴곰 첫 새끼 출산

## 1. 우리나라 고유종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첫 결실

■ 환경부는 국내 고유종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2개체가 건강한 새끼를 출산한 것을 '09년 2월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끼 한 마리씩을 출산한 어미 2개체(NF-08, NF-10)는 5년생으로 '05년 북한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며,
- 두 마리 모두 '08년 5월 ~ 9월 중 교미를 하였으며, 12월 중 바위굴에서 동면을 시작하여 금년 1월 새끼를 출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장에서 직접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추진해 온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센터는 그간 새끼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성체에 대하여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 관리를 해왔으며,

• 이번에 출산한 NF-08의 경우 '07년 9월과 '08년 8월에 목에 올무가 걸린 것을 발견 현장에서 치료 후 재방사하였고, NF-10은 '06년 9월 허리에 올무가 걸린 것을 치료 후 재방사한 개체이다.

■ 통상적으로 방사 개체가 정상적인 먹이섭취 활동과 혹독한 겨울철 동면과정을 거쳐 새끼를 출산하면 자연에 비교적 잘 적응한 것으로 평가 되므로, 금번 반달가슴곰의 새끼 출산은 성공적인 종 복원사업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송동주 센터장은 “종 복원은 개체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건강한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인내와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어떤 동물이든 새끼와 함께 생활하는 개체는 민감하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지리산의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고 샛길 등을 이용할 경우 서식지내 반달곰과 만날 확률이 높아 위험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들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2.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과거 한반도에 상당수의 반달곰이 서식하였으나 일제시대 해수구제(害獸驅除), 보신문화, 각종 개발에 의한 서식지 파괴 등으로 반달가슴곰의 개체수 급격히 감소
- '00년과 '02년 각각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촬영(MBC, 반달곰관리팀)되면서, 지리산에 약 5마리 정도 생존할 것으로 추정되어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멸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98년 ~ '01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새끼곰 시험 방사 실험을 통해 반달가슴곰 복원 가능성 확인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9호, CITES 부속서 1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임.

### ■ 그간 추진경위

- '98. 12 ~ '01.11 반달가슴곰 종복원 기술 개발연구(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사업 중 반달곰 4마리 시험 방사 후 회수('01.9 ~ '04.05)
- 2002. 5 : 반달가슴곰관리팀 발족 · 운영
- 2004. 10. : 1차 복원개체 도입 및 방사(연해주産 6개체 : 암3, 수3)
- 2005. 7. : 2차 복원개체 도입 및 방사(북한産 8개체 : 암4, 수4)
- 2005. 10 : 3차 복원개체 도입 및 방사(연해주産 6개체 : 암4, 수2)
- 2007. 8 : 「멸종위기종복원센터」독립기구로 개소
- 2007. 11 : 4차 복원개체 도입 및 방사(연해주産 6개체 : 암4, 수2)
- 2008. 5 : 5차 복원개체 도입 및 방사
  - 서식지의 보전기관인 서울대공원에서 북한産 1개체(암1)

※ 2009년 1월 현재 15개체(27개체 방사)자연에서 활동 중 

# 반달가슴곰 새끼 출산 관련 업무 보고

새끼 출산 가능성이 있어 그간 집중 모니터링 및 관리 중이던 반달가슴곰 NF-08, NF-10번 개체가 새끼를 출산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1. 출산 개체현황

- 출산 개체 : 2005년 북한에서 도입한 2개체(출생년도 : 2004년 1월생)

도입년도 (원산지)	관리번호	관리코드	출산확인	새끼출산	성별	현재위치 (3.3 현재)
2005	8	NF-08	'09. 2. 23	1개체	미확인	왕시루봉 하부
(북한)	10	NF-10	'09. 2. 26	1개체	수컷	남매폭포 상부

※새끼의 경우 1.5개월~2개월 정도 성장한 것으로 판단( '09년 1월생)

## 2. 집중관리 및 모니터링

### ■ 개체 집중관리

- '06년 이후 출산 가능성이 있는 개체(3세 이상)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 현장 관리 중 울무에 걸린 개체 구조 및 치료 후 재방사

일자	관리번호	관리코드	성별	내 용	비고
07년 9월 08년 8월	8	NF-08	♀	목에 울무가 걸린 채로 발견 현장 치료후 재방사	새끼출산
06년 9월	10	NF-10	♀	목에 울무가 걸린 채로 발견 현장 치료후 재방사	새끼출산
08년 6월	18	RF-18	♀	허리에 울무가 걸린 채로 발견 학습장 이송 치료 후 재방사	-

### ■ 교미 행동 분석( '08년 5월 ~ 8월)

- 출산 가능성이 있는 개체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실시
- 암컷 3개체(8, 10, 18번)에 대한 교미 행동 분석
- 교미 행동 분석 결과 암컷 3개체의 경우 수컷과 교미 활동 및 서식지 중첩이 확인되어 집중관리 실시

출생한 새끼의 경우 생태적으로 자연 생존 개체임을 표방하여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등록 등 법적인 지위 획득

- 야생동물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 가능

• 복원사업의 최종 목표는 지리산뿐 아니라 백두대간 생태축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국립공원의 지역의 관리기반을 확립(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3. 새끼 출산 의의

- 자연적응 과정의 최종 단계로 자연에 방사한 개체의 경우 1차적으로 먹이섭식 활동, 동면활동을 거쳐 새끼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에 참여한 암·수 모두를 자연에 적응한 개체로 판단하며,
- 새끼 출산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목표인 최소준속개체군인 50마리를 형성 및 지리산 생태계 복원의 중요한 단계로 그 의의가 매우 큼
- 방사개체의 경우 법적, 생태적 지위가 없는 상태이나, 금번

## 4. 향후 관리 방안

- 새끼 출산에 따른 서식지 위협요인 관리대책 수립
- 관련기관(환경부, 공단, 유역청, 지자체) 회의를 통한 관리대책 마련
- 생태적·법적 지위 획득
- 어미와 새끼 개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새끼 개체의 샘플을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 수행(부모세대 확인) ▲▲